

KORDI ISSUE PAPER



2023-06

발행일 2023.12. / 발행인 김미곤

발행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우)10310 | TEL : 031)8035-7500 | E-mail : webmaster@kordi.or.kr

참여자 관점에서 바라본 민간형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¹⁾

김문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부 부연구위원
(moonjung87@kordi.or.kr)

요약

- 제3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에 따라 향후 취·창업형태의 민간형 노인일자리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본 고에서는 참여자 관점에서 민간형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를 토대로 민간형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 효과를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민간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그룹인터뷰조사(FGI)를 진행한 결과, 노인일자리사업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 개선에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함.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건강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참여자들이 다수 있었고, 일자리사업 참여로 신체적 건강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함.
- 특히, 여성 참여자의 경우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생애 첫 일자리로 심리적 건강, 우울감 개선, 자신감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함.
-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일자리 참여 전보다 자신감, 자부심이 높아졌고, 사회적 관계(가족(부부, 자녀), 지인) 개선에도 효과적이라는 점을 확인함.
- 참여자 관점에서 민간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해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는 향후 민간형 노인일자리사업이 경제적 수단으로써의 의미를 넘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인복지정책으로 역할과 기능을 강조해 나갈 필요성을 시사함.

1) 본고는 김문정 외(2023), 「노동환경변화에 따른 민간형 노인일자리 발전방안 연구(12월 발간예정)」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힘.

1. 필요성 및 목적

- 2004년 노인일자리사업 도입 이후, 노인일자리사업 효과성 평가에 대한 연구가 다수 축적됨. 초기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는 의료비 절감 및 빈곤율 감소 등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노인 일자리사업이 노인복지사업으로 활기찬 노후에 기여한다는 정책목표에 맞추어 참여자 관점에서 나타나는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포함하는 형태로 추진됨.
- 다만, 그간 노인일자리사업이 공익활동을 중심으로 확대 추진되어 오면서 사업의 효과성 검증 및 평가 대상 또한 공익활동 사업(참여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음. 일부 시장형사업단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포함하여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민간형 노인일자리가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음.
 - 그간의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참여노인의 건강개선, 사회관계 개선, 삶의 질 개선, 경제적 수준 개선 등의 생활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함.
 - 또한, 노인일자리정책 추진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로 노인빈곤완화, 보건의료비 절감 등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확인함(김미곤 외, 2006; 이석원 외, 2009, 이소정 외, 011; 강은나 외, 2017).
- 향후 민간형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와 함께 민간형 노인일자리사업의 정당성과 의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사업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본 고에서는 참여자 관점에서 민간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에 따른 경험적 변화를 중심으로 민간형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를 심층적으로 살펴봄.

2. 연구방법 및 내용

- 조사 추진 시점에 민간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노인을 대상으로 심층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추진함. 다만,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한정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추진함. 최종 조사에 참여한 참여노인은 9명이며 2023년 8월 22~25일에 걸쳐 조사를 진행함.
 - FGI는 참여자들간의 중토론을 통해 다양한 질적 정보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양적 정보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방법 중 하나임.
 - 이번 조사에서는 연구자에 의한 편향된 질문이나 정보 수집을 예방하고 자연스러운 토론 분위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령자 일자리와 관련한 경력을 갖춘 외부 전문 모더레이터를 활용하여 추진함.

〈표 1〉 조사대상 일반적 특성

		사례수(명)	비중(%)
전 체		9	100.0
성별	남	5	55.0
	여	4	45.0
연령대	50대	2	25.0
	60대	5	50.0
	70대	2	25.0
가구구성	독거	0	5.0
	노인부부	5	60.0
	기혼자녀 동거	0	5.0
	미혼자녀 동거	3	30.0
교육수준	중졸	3	30.0
	고졸	3	30.0
	2년제전문대졸이상	4	40.0
기초연금 수급 여부	수급	1	15.0
	비수급	8	85.0
공적연금 수급 여부	수급	4	47.4
	비수급	5	52.6
주된 일자리 여부	있음	5	55.0
	없음	4	45.0
주된 일자리 종사지위	상용직	5	50.0
	임시일용직	5	50.0
주된 일자리 산업	제조업	1	10.0
	서비스업	2	25.0
	기타	2	20.0
	없음	4	45.0
주된 일자리 직종	관리직전문가	3	30.0
	사무직	1	15.0
	서비스,판매	1	10.0
	단순노무	2	20.0
	기타	2	25.0
근무기간(년)	5년미만	3	35.0
	5~20년미만	2	20.0
	20~35년미만	2	20.0
	35년이상	2	25.0

3.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제활동 상태 변화

1) 주된 일자리 퇴직 사유 및 퇴직 연령

- 노인일자리를 통해 신체적, 심리적으로 매우 건강해졌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제시됨.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노인일자리를 계속하기 위해서 신체적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
- 특히, 공공형 일자리에 비해 근력, 체력이 필요한 일자리이다 보니, 계속 일을 하기 위해 평소 체력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경험적 사실을 확인함.
- 여성 참여자들의 경우 생애 첫 일자리로 민간형 노인일자리의 의미가 더욱 크다는 것을 확인함. 생애 첫 일자리를 얻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향상, 우울증 완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타남.

“제가 하는 업무가 지금 계속 서서 말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지도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 안 나오는 날에는 꼭 운동을 해요. 안 그러면 이거 계속 못할 것 같기도 하고, 더 힘들 것 같아서 이거 하기 전보다 확실히 운동을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택배업무다 보니까 여기저기 길도 찾아야하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거 하면서 운동한다 셈 치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택배 없을때도 운동겸 나와서 동네 한바퀴라도 더 돌고 그래요.”

“3일 정도 나와서 일을 하는데, 이거 없을때는 꼭 나가서 운동하고 해요. 일 하기 전보다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시간보다.”

“이 일을 하려면 이것저것 준비할게 많아요. 머리로 싸야하고, 생각도 해야하고, 그래서 계속 책도 많이 읽으려고 하고, 이것저것 요즘 트렌드도 좀 찾아보려고 하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치매 예방 이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을 계속 하고 머리를 계속 쓰니까요.”

“남편 장례치르고 우울증이 엄청 심해져서 입원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래서는 애들한테 짐이 돼서 안되겠다 뭐라도 하자 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이거 하고나서부터는 우울증 약도 안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건강해졌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2) 가족관계 개선

- 참여자들은 가족 간의 사이가 좋아졌다는 점에서 노인일자리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음. 여성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참여로 인해 부부간의 대화가 많아지고 사이가 더 좋아졌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자식과의 관계가 더욱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일자리 참여가 사회활동이 가능할 만큼의 건강수준과 경제적 용돈벌이가 된다는 점에서 자녀들이 느끼는 부양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자녀와의 관계가 더욱 좋아졌다고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저는 일 하기 전에는 계속 주부였는데, 남편이 퇴직하고 24시간 붙어있으려니까 참 힘들었어요. 가족끼리 사이도 더 안좋아지는 것 같고 그런데 일 하고 나서는 몇시간이라도 떨어져 있기도 하고, 나가서 일 하고 돈도 벌어들이고 하니까 외식도 내가 번 돈으로 사고 하니까, 남편이랑도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손주들 용돈도 주고, 이 나이 먹어도 일 하고 있으니까 애들도 좋아해요. 엄마가 아직 일할만큼 건강 하구나 그러면서 안심도 좀 하는 것 같고 좋아하니까 나도 좋고 계속 하고 싶고 그래요.”

“노인일자리 참여하고 나서 내 용돈 내가 벌어서 쓰고 이러니까 서로 터치를 안하니까 그게 좋아요. 내가 벌어서 손주들 용돈도 조금 주고 생일에도 챙겨주고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돈으로 터치를 안 하니까 불화가 안생기고 오히려 좋아요.”

“이 나이되면 애들이 치매 그런거 걱정하고 하는데, 이것 계속 하고 있다고 하면 그래도 좀 안심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집에만 있는 것 보다 나도 애들이랑 할 얘기도 많아지고.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3) 자존감 향상, 삶의 활력

- 노인일자리사업 전과 비교하여 자신감과 자존감이 향상되었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됨. 특히, 남성 참여자의 경우, 꾸준히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면서 일을 한다는 자부심과 자신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남.

“친구들하고 모임있고 그럴때 내가 일 한다고 하면 다들 대단하고 해요. 처음에는 뭐 그런 것도 일이라고 하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1년 2년 계속 뭔가 하고 있다고 하니까 대단하게들 봐요.”

“계획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아무래도 일을 하게 되면 몇시에 일어나서 몇시까지 준비하고 몇 시에 나가고 이런 계획이 세워지니까. 그게 일주일, 한달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하기 전보다 계획적으로 사니까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같아서 좋아요.”

5. 민간형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와 시사점

- 이상에서 민간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참여 전후의 변화에 조사한 결과, 노인일자리사업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 개선에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함.
-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건강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참여자들이 다수 있었고, 실제로 노인일자리에 계속 참여 하면서 운동을 더욱 열심히 하게 된다는 맥락에서 신체적 건강개선에 효과적임을 확인함.
- 생애 첫 직장으로 노인일자리에 참여한 여성 참여자의 경우, 일자리를 통해 우울증 완화와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었다는 경험적 사실을 확인함. 또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일자리 참여 전보다 자신감, 자부심이 높아졌고, 사회적 관계(가족(부부, 자녀), 지인) 개선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일자리 참여가 사회활동이 가능할 만큼의 건강수준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과 경제적으로 용돈별이가 된다는 점에서 자녀들이 느끼는 부양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자녀와의 관계가 더욱 좋아졌다고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민간형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경험적 사실은 향후 민간형 노인일자리사업은 단순히 고용노동적 관점에서의 일자리 정책을 넘어서 활기찬 노년을 영위할 수 있는 노인복지적 관점에서의 일자리정책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음을 시사함. 또한, 노인복지적 차원에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일자리 확충이 필요함을 시사함.

참고문헌

- 강은나, 백혜연, 김영선, 오인근, 배혜원. (2017). 노인 일자리 정책효과 분석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문정, 김진, 백혜연, 김가원, 박병현, 성경하. (2021). 2021 노인일자리 정책효과 분석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이소정, 정홍원, 최혜지, 배지영, 박경하, 윤남희, 안세아, 정은지. (2011).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 평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경하, 김문정, 배지영, 서정희, 정해식, 유선치, 오혜인. (2022). 제3차(2023~2027)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